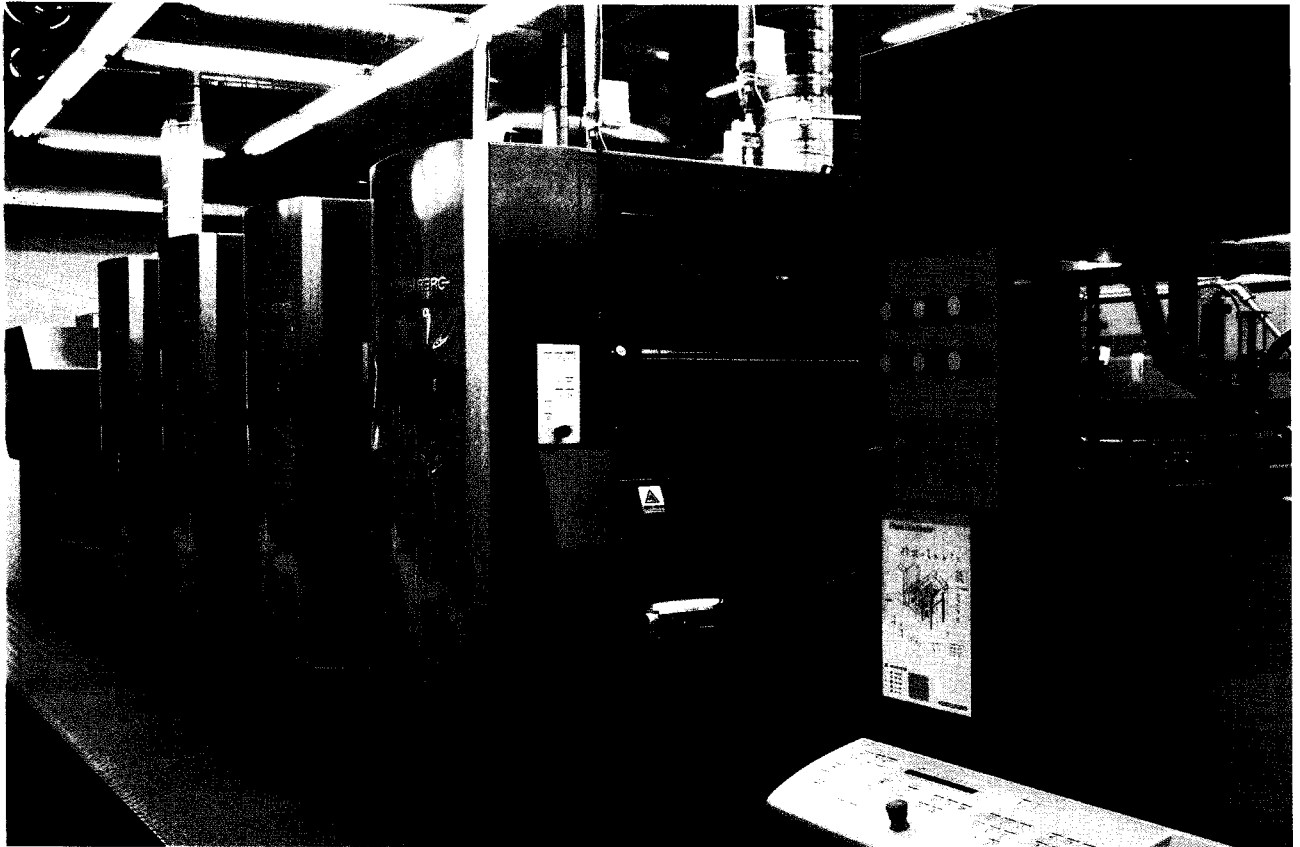


하이델베르크 SM 102 도입

작업 효율 향상으로 생산 용량 증가 기대

글 | 김상호 부장 kshulk@print.or.kr



인프린탑(대표 장영태)은 지난 7월 1일 하이델베르크사의 스피드마스터 102 4도 및 5도 인쇄기를 동시에 도입하면서 오픈하우스 행사를 가졌다. 파주 출판도시 초입에 위치하고 있는 인프린탑은 카탈로그, 사보, 지도 단행본 등 전문 출판물 인쇄 및 제판 가공업체로 창립 이래 전문적으로 인쇄관련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번 오픈하우스와 관련해 인프린탑은 기존의 노후된 시설을 교체하면서 생산성과 품질을 높인데 초점을 맞추고 하이델베르크사의 스피드마스터 102, 4도와 5도 인쇄기를 도입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오픈하우스 행사에는 한국하이델베르크의 김범식 사장을 비롯, 고객사 및 관계자 100여명이 참가해 새로운 인쇄기를 축하하고 성공적인 운용을 기원했다. 이날 행사는 회사 직원들의 고사에 이어 외부 손님들을 맞는 순서로 이어졌으며 내빈들의 기념촬영과 만찬으로 이어졌다.

한편, 하이델베르크사의 관계자는 스피드마스터 CD 102시리

즈는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가 이뤄지고 있는 하이델베르크사에서 자랑하는 최고 수준의 시리즈이며 뛰어난 유연성을 바탕으로 거의 모든 종류의 인쇄물을 소화할 수 있는 전천후 인쇄기라고 전했다. 세계적으로도 많은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스피드마스터 102는 프리넥 프레스센터 컴팩트 고성능 콘트롤 센터, 두께 0.03~1mm까지의 다양한 인쇄용지 처리, 터치스크린과 조그휠이 있는 중앙 배지부 콘트롤 판넬을 갖추고 있다.

프리넥 프레스 센터 컴팩트는 하나의 중앙 콘솔에 인쇄기 콘트롤 시스템뿐만 아니라 원거리 컬러 및 핀 맞춤 콘트롤 기능을 겸비하고 있다. 스피드마스터 102 인쇄기는 기존 작업이 진행되어도 다음 작업을 준비할 수 있어 현 작업과 다음 작업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사용할 수 있어 인쇄기를 설정하는 단계를 70%까지 줄일 수 있다. 또한 작업수와 그 복잡성에 따라 연간 생산 용량은 최대 8%까지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